

# 外國文物의 導入과 傳統의 調和

민 병 천

(東國大法政大學長 · 政博)



I. 해방후에 우리는 좋은 싫든 歐美의 文物을 엄청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다 앞선 나라의 文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능과 결과를 가져 온 면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外國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절제가 있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外國文物 導入에 대한 逆作用이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것은 종래에는 맹목적인 도입이 많았으나 그것으로 인한 逆作用 때문에 절도있는 도입이어야 하겠다는 當爲性이 된다고도 본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가 文物導入의 적정선

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뚜렷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外國의 科學과 技術과 같이 주로 물질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문명의 도입은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지만 精神과 같은 文化의 도입은 너무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을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모두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쪽 모두 선택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도입의 수준에 대한 合意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外國文物의 도입이 어떤 順機能과 逆機能을 하게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導入現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外國의 것과 내것의 조화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보다 더 앞선 나라로 부터 문물을 들어 올 경우, 그것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면도 있고 또 반대로 逆機能을 하는 면도 있다고 보는데 먼저 도움이 되는 쪽에서 찾아보자.

첫째, 선진적인 文化와 制度나 科學과 技術이 도입됨으로써 보다 빠른 속도로 國家發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뒤진 制度나 經濟生活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다 앞선 나라의 制度나 技術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될 수 있다. 資本과 人力과 技術의 세가지 요소가 經濟發展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新生國의 경우는 그 세가지가 모두 결여돼 있거나 일부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外國으로부터 부족한 것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된다. 즉, 外國으로부터의 과학과 기술의 도입은 이 점에서 보면 경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생활양식이나 제도에 있어서도 新生國 또는 後進國의 경우, 先進國의 그

外國狂이 많은 新生國이나 後進國은 자기자신의 독창적인 문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先進文物을 받아들일때 정신은 우리의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것들을 받아 들임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생활과 제도를 가질 수도 있다.

둘째, 세계적인 보편성에 입각한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고 세계적 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先進的인 것의 도입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항상 앞서가는 문화가 뒤서가는 文化圈에 침투되고 유입되게 마련이다. 앞서가는 문화가 세계에 보편화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나 문명의 價値評價基準도 자연히 앞서가는 문화에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世界化 되기 때문이다. 유럽사람들이 考案하고 발전시킨 政治制度로서의 民主政治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거나 채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유럽문화의 世界化現象의 한 단면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先進하는 나라의 것을 외면할 경우 자칫하면 世界文化와 文明의 뒤안길에 처질 우려가 있다. 보편성을 잃은 특수성만을 가진 孤立된 문화에 停滯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外國것의 流入에서 파생되는 逆機能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 外國것의 도입이 지나칠 경우에는 自己文化的 放棄現象이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상실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러 민족이 先進文化에 그들 고유의 문화를 흡수당한 예를 알고 있다. 蒙古나 滿州의 諸族文化는 先進漢族文化에 흡수당하여 소멸되고 말았다. 征服者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당한 문화에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문화가 먹히고 만 예이다.

따라서 先進의 것을 과도하게 도입할 경우 자기문화의 상실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문화적 예속이다. 文化的 隸屬은 실질에 있어서 獨立性과 自主性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 받은 쪽(돈이든, 기술이든, 제도이든)은 준 쪽의 영향을 크게 받게 마련이고 그때에 自己主體를 잃을 때는 예속화되고 만다.

둘째, 外國것의 流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先

進的인 것, 普遍的인 것을 모두 준쪽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생겨 誤判을 하게 되므로서 價値倒錯이 일게 된다는 것이다.

先進文化圈의 것 중에서는 바람직한 文物이 많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많다. 가령 歐美의 科學이나 技術등 주로 물질적인 文明事項들은 대체로 「先進的」이고 「普遍化될만한 것」이지만 정신등 文化事項들은 오히려 「普遍化해서는 안될 것」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歐美의 모든 것은 「先進」이고 「普遍性」을 가진 것인 듯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物質爲主의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물을 받아 들였는데 그 先入見에서 모든 다른 문제도 평가하기 때문이다.

III. 이상에서 보았듯이 물질적인 문명을 歐美로 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모든 後進的인 新生國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정신적인 문화까지도 歐美의 것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경향은 젊은 世代에게서 보다 더 나타나고 있다. 재즈 音樂에 열광하지 않는 젊은이는 거의 없을 정도이지만 國樂에 대해서는 열광은 커녕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향이다.

그러한 性向때문에 外國의 商標를 붙인 것이나 西洋語 또는 西洋式 말로 표현된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過大西洋化 또는 西洋事大性을 나타낸 것으로서 경계할 일이다.

결국 우리는 그들로부터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되 정신은 우리의 것에 바탕을 두어야만 그 모든 副作用과 逆作用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된 外國의 것과 傳來의 우리의 것을 조화시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독창적인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外國狂이 많은 新生國이나 後進國은 영원히 자기자신의 독창적인 문화와 문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